

# 아빌라성과 가르멜회 성녀 데레사



스페인, 프랑스 성지순례 이틀째 되던 날 버스로 파티마를 향해 이동 중이었다. 언덕길을 달리던 중 길고 커다란 성벽이 나타났고 우리는 차를 세우고 근처 야트막한 바위 동산에 올라서 성벽을 내려다 보았다. 마치 영화에 나올 법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을 것 같은 중세 성곽 도시 아빌라. 해발 고도 1172m 높은 바위언덕에 지어진 유럽에서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로마식 성곽으로 둘러싸인 도시이다. 중세 카톨릭의 개혁을 주도한 성녀 데레사의 생가와 그가 만든 가르멜 수도원으로 유명해 성지순례의 장소로 관광객보다는 종교인들이 더 많이 찾는 곳이다. 성벽의 길이는 걸어서 1시간 거리이며 현재도 주민들이 성곽 내에서 생활하고 있다

견고한 벽돌의 성문을 지나자 격렬한 전쟁터였을 넓다란 잔디밭이 펼쳐졌다. 벽으로 둘러싸인 성의 역사는 중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세도시 아빌라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은 11세기 말, 스페인 격동의 시기에 남부의 이슬람 무어인의 공격을 방어 하기위해 기독교 아스투리아스 왕국이 건설하였다.

성벽은 식량과 상품의 왕래를 통제하고 도시를 격리하여 적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하는 기능 외에도 전염병의 발생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했다. 불규칙한 직사각형 모양으로, 중간중간 타워와 둥근 포탑이 있다. 또 도시로의 접근을 위해 9 개의 문이 있으며, 그 중 가장 장관은 푸에르타 델 알카사르 (요새의 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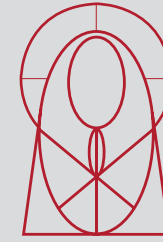
테레사 수녀는 1515년 이곳 아빌라에서 태어나 18세 되던 해 가르멜 수도회에 입회 하였으며 당시 부패한 수도회를 개혁하기 위해 맨발의 가르멜 수도회를 만들고 기도신학의 권위자로서 수도적 관상 생활과 사도적 활동의 조화와 일치를 추구하는 영성사상으로 가르멜 수도원을 이끌었다. 성녀 데레사는 “하느님을 얻는 사람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 라고 주장하고 그러한 영성으로 평생을 살았으며 1582년 “저는 주님 교회의 딸입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 그녀는 겨울에도 맨발로 살았으며 놀라운 통찰력과 의지로 평생 17개의 남녀 수도원을 만들었다. 그로부터 40년후 1622년에 교황 그레고리 15 세로부터 시성 되었다.

사진과 글 변태용 요셉



수녀원 앞을 성녀 데레사의 동상

연중  
제 24주일  
2023년  
09월 17일



##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고해성사-11:10AM

###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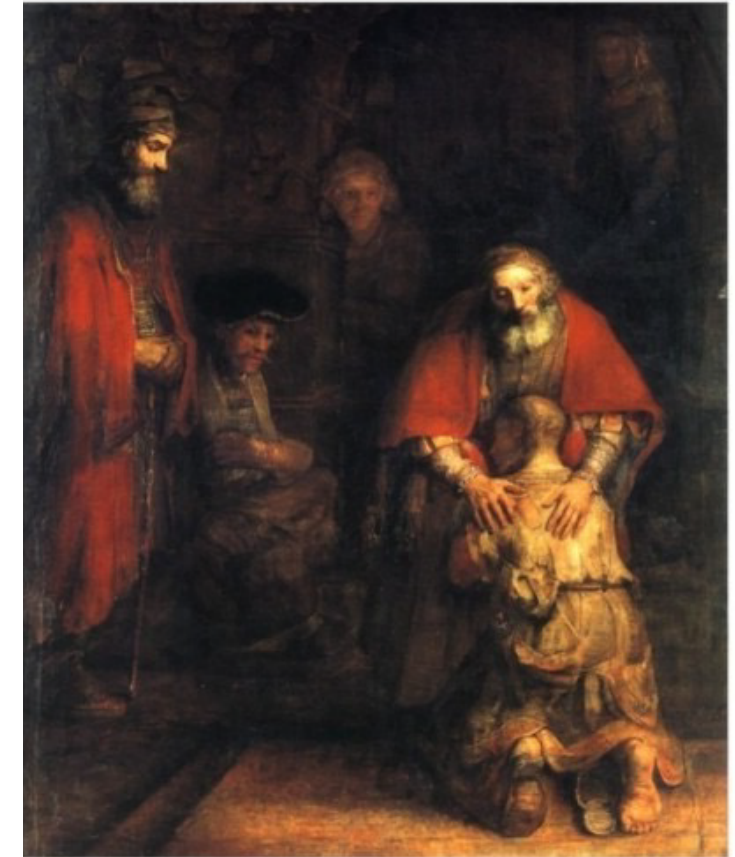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9AM~2PM)

###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마태오 18,22>

### < 이번 주 전례안내 >

# 제 1독서 집회서27,30-28,7  
# 화답송 시편 103(102),1-2.3-4.9-10.11-12(© 8)



후렴: 눈물로 씨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14,7-9

# 복음 환호송 요한 13,34 참조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복음 마태오18,21-35  
○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 성가번호 입당 215 봉헌 512, 211 성체 501, 502 파견 46

새로 오신 분, 방문해 주신분, 오랜만에 오신 교우들 환영합니다!

**미사지향 (연미사)**

- 이석종(스테파노) - 가족
- 추성태(바오로)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최예생 - 김 스탈라
- 심정일 - 박 안나
- 이동현(요셉) - 가족

**미사지향 (생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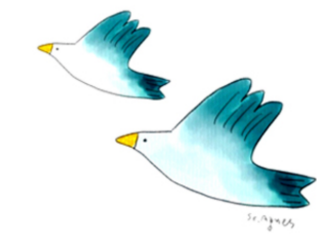
- 염은미(클라라) - 가족
- 오경선(원선시오), 오애희(울리아나) - Carol & Cliff Rockwell
- 한지혜(크리스티나) - 전옥주(글라라), 오 세실리아, 유용희(울리아나)
- 성낙철(안드레아), 성경숙(아가다) 가정 - 이막동(아네스)
- 양우성 - 이막동(아네스)
- 이서욱(지타) - 이서형(요안나), 채미영(테레사)
- 임영자(안나) - 하용무(테레사)
- 오현주(요한) 시종직 수여 축하 - 썸머셋 구역, 최정원(레지나), 한상철(빈첸시오), 채미영(테레사), 김영필(안토니오) 가족, 유병기(베네딕도)
- 오옥자(테레사) - 채미영(테레사)
- 임아영(소화테레사) - 가족
- Our Lady of Mercy 한인&미국 공동체 - 정수지(아네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 헌금 (153명).....	\$1,428
• 2차헌금 (베드로 성금).....	\$613
• 교무금.....	\$1,540
전광수(7-8)      황분숙(5-8)      배인경(7-9)	
하건철(8-10)    조인(7-12)      최율리오(6-8)	
김성일(7-9)	
• 감사헌금.....	\$1,000
익명 (\$500)      익명 (\$500)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영철(프란치스코)	하건철(안토니오)
오용덕(헨리코)	오경선(원선시오)
염은미(클라라)	하준석(마태오)
곽 율리안나	방진숙(테레사)
정수지(아네스)	이금주(베드로)
송희수(글라라)	



하느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주님은 내 생명을  
더 밝히는 분이시니

비오로팔만엔즈

**2차 헌금**

• 10월 1일: 유틸리티

**친교 봉사 일정**

• 10/15사우스브런스윅    • 11/19썸머셋    • 12/17 에디슨

**사무실 근무시간 변경**

• 9월 19일부터 사무실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변경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추석 합동 위령미사 신청**

• 9월 24일(주일)은 추석 합동 위령미사가 봉헌됩니다. 모든 교우분들께서는 각자의 조상님들의 영혼을 위하여 위령미사를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미사 후에는 친교실에서 식사 나눔이 있습니다.

**예비자 교리 오리엔테이션과 첫 교리 모임**

- 일시: 9월 24일 (주일) 미사 후 1시 30분
- 장소: 친교실 소회의실
- 문의: 교육분과장 허정(아나스타시아)

**주일학교 (K-8th Grade) 및 유스 (9th-12th Grade)모집**

- 2023-2024 주일학교가 9월 10일부터 시작합니다.
- 등록: OLM성당 홈페이지 링크 이용
- 등록비: \$70/학생, \$130 (2명), \$180 (3명) 사무실로 납부
- 체크는 Payable to OLM 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Parish Picnic (본당의 날 행사)**

- 일시 : 10월 1일 (주일) 오전 11시부터
- 장소 : 성당 뒷편 주차장
- 내용 : 오전 10시 한/미 공동체 합동 미사  
오전 11시 음식 나눔 및 친교  
오후 12시 30분 반려동물 축복식 및 아이들 놀이 행사
- 본당의 날 행사를 도와주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레지오 마리아 야외행사**

- 일시: 10월 3일(화) 12시
- 장소: 성 요셉 성지 (St. Joseph Shrine), Stirling, NJ
- 대상: 레지오 활동단원 및 협조단원
- 준비물: 매일미사책, 목주, 뗏세라 (점심 제공)

**오현주(요한) 형제님의 시종직 수여 미사가 9월 16일(토) 오후 5시 Sacred Heart Church, Manville 에서 있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9월 순교자 성월을 맞이하여 9월 20일(수)을 성인 김대건 안드레아와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로 지냅니다. 우리 조상 순교자들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2023 에디슨 한인성당 골프대회 결산**

- 총 수익: \$9,110
- 총 지출: \$8,150
- 수 익: \$960

**모든 친교 후 청소 철저**

1. 모든 쓰레기통은 비우고 새 비닐백으로 쥘워주세요.
2. 재활용통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3. 재활용 통에는 병, 캔, 깨끗한 종이 만 넣어주세요.
4. 바닥 청소
5. 마지막 퇴소자는 소등 및 문 단속 확인 바랍니다.

**제1독서: 집회서27,30-28,7**

분노와 진노 역시 혐오스러운 것인데도 죄지은 사람은 이것들을 지니고 있다. 복수하는 자는 주님의 복수를 만나게 되리라. 그분께서는 그의 죄악을 엄격히 해아리시리라. 네 이웃의 불의를 용서하여라. 그러면 내가 간청할 때 네 죄도 없어지리라. 인간이 인간에게 화를 품고서 주님께 치유를 구할 수 있겠느냐? 인간이 같은 인간에게 자비를 품지 않으면서 자기 죄의 용서를 청할 수 있겠느냐? 죽을 몸으로 태어난 인간이 분노를 품고 있으면 누가 그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겠느냐? 종말을 생각하고 적개심을 버려라. 파멸과 죽음을 생각하고 계명에 충실하여라. 계명을 기억하고 이웃에게 분노하지 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계약을 기억하고 잘못을 눈감아 주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14,7-9**

형제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신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바로 죽은 이들과 산 이들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마태오 복음18,21-35**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 나라는 자기 종들과 썸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썸을 하기 시작하자 만 탈렌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목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 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렸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2023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이 지난 성체 성혈 대축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운동의 목표는 성체성사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관계를 일깨움으로써 교회를 “새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3년 동안의 계획으로,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교육하며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가톨릭 신자 중에서도 실제로 그리스도의 성체성사에 대한 진리적 존재를 믿는 사람은 31%에 불과합니다.

이 3년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믿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우리 믿음의 근원이자 정점인 주님께서 현존하시는 성체성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에는 교구 부흥의 해, 2024년 National Eucharistic Congress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애나, 7월 17일-20일)와 국가 선교의 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우리 Our Lady of Mercy성당에서는 매 주 미사 중 공지사항 시간에 교육적인 "신앙상식" 시리즈를 발표할 계획이며, 이를 주보에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유스그룹 학생들이 성체성사를 통해 예수님의 존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외에도 강연 시리즈와 모든 교구 신자들을 위한 Night of Mercy행사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성체 기도문**

**오 성스러운 만찬**

오 거룩한 성체여,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계시는 곳,  
그리스도 수난의 기억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가득 채우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저희가 얻게 하소서.

**O Sacrum Convivium**

O sacred banquet,  
in which Christ is received,  
the memory of his Passion is renewed,  
the mind is filled with grace,  
and a pledge of future glory



SCAN ME: 가스펠 톤